

第144回國會
(閉會中)

5·18光州民主化運動
真相調査特別委員會 會議錄

第27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時 1989年1月31日(火)

場所 勞動委員會

議事日程

1. 委員會運營에 관한件

審査된案件

1. 委員會運營에 관한件..... 1面

(14時32分 開議)

○委員長 文東煥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7次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査特別委員會를 開議 하겠습니다.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報告해 주십시오.

○立法調査官 朴昌熙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 새로 오신 委員 人事가 있겠습니다.

曹萬厚委員 人事해 주시기 바랍니다.

○曹萬厚委員 統一民主黨의 曹萬厚입니다. 감사합니다.

1. 委員會運營에 관한件

(14時34分)

○委員長 文東煥 議事日程 第1項 委員會運營에 관한件을 上程합니다.

오늘 午前 4黨 幹事會議 結果에 대하여 金仁坤幹事께서 報告해 주시겠습니다.

○金仁坤委員 新民主共和黨의 金仁坤委員입니다.

오늘 午前中에 있었던 4黨 幹事會議 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小委員會 構成을 일부 調整을 했습니다.

즉 資料檢證을 1小委와 2小委로 나누었던 것을 資料檢證小委員會로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리고 特別立法制定 및 事後對策小委員會를 구성을 했습니다. 既 構成되어 있는 現場檢證小委員會와 韓美關係小委員會를 합해서 總 4個의 小委員會로 구성해서 活動하기로 합의

를 했습니다.

다음은 周南마을 뒷산과 녹동마을 앞산 속칭 부영산에서 최근에 발견된 死體의 檢證結果에 대하여 韓國法醫學會에 鑑定을 의뢰하기로 4黨 幹事間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외 聽聞會 再開與否問題등 特委問題를 協議하였으나 의견이 접근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이상 報告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小委員會 構成 委員長이라든가 委員의 多數 更迭調整이 있었는데 이것은 油印物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방금 幹事會議 結果에 대해서 報告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幹事會議에서 합의한 事項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우리가 다음 特委모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妥協點을 모색했으나 그것이 可決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民正黨에서는 이 이상 特委를 모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特委를 모이는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野黨幹事님들은 前 두大統領이 나와서 證言해야 된다 하는 意思를 강하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요전에 同行命令狀 執行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再執行하는 방

법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분을 다시
出頭하도록 와서 證言하도록 우리가 호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방법을 쓰든지간에 이렇게 민
正黨이 참가를 拒否하는 이런 마당에서 다른
방도를 강구하지 않고 금방 聽聞會를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나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래 이야기 했습니다.

民正黨쪽에서는 이것을 일단 院內總務들에게
委任해야 된다. 요전에 野黨만 執行하려고
했을때 그것을 院內總務들에게 맡겨서 해결을
강구했는데 民正黨 주장에 의하면 앞으로의
이러한 特委모임 다시 말해서 野3黨만 모이
게 되는 모임의 문제는 院內總務들에게 一任
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院內總務의
權限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野黨幹事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그때에
한해서 委任된 것이고 그것이 恒久的으로 이
런 문제는 전부 總務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
니라 우리가 그대로 모임 權限이 있는 것
이다 이렇게 주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民正黨이 이렇게 出席
을 拒否하는 마당에 野3黨이 다른 노력을
해 보지도 않고 그대로 이것을 執行하는 것
이 지혜로운 일이나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野黨幹事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으나 이것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나 하는 것을 의논해 보는
것이 좋겠다 대체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지 못한 대로 여러분들이 의
견을 서로 나누는 순서를 가질까 합니다.

이제 말씀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石和委員 統一民主黨의 張石和委員입니다.

저는 오늘 委員會에서 서너가지 문제를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聽聞會 계속 여부 문제입니다.

지난 번에 安富雄證人이 나와서 實彈支給處
에 관한 새로운 證言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5月21日 道廳앞
發砲 때에 사용한 實彈이 지금까지 空輸部隊
에서 주장한 31師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旅團本部에서 「헬」機로 실어와서 道廳에 내린
다음에 그 實彈을 받아서 發砲에 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月刊朝鮮 「인터뷰」記事를
是認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그

당시에 發砲를 計劃的으로 大隊長線에서 이루
어진 것이 아니고 旅團本部에서 그 實彈을
비행기로 실고 와서 發砲를 한 것이기 때문
에 최소한도 旅團長의 指揮下에 計劃的으로
實彈이 支給된 것이고 또한 計劃的으로 發砲
가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立證을 한 것입
니다. 이와 같은 證言은 지금까지 崔 雄旅
團長이나 또는 여러 大隊長들이 한 證言과는
완전히 相馳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사실을
우리 特委에서 밝혀내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하면 이제부터 이 實彈支給
處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 特委의 최대
爭點이 되는 光州問題의 최대 爭點이 되는
發砲責任者 發砲命令者가 누구냐 라고 하는
점을 새로운 상황에서 가려낼 수 있는 그리
한 心證을 굳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왜 이 段階에서
우리 聽聞會 활동을 끝내자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民正黨의 주장은 남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아다시피 全斗煥
崔圭夏 前大統領이 아직 證言臺에 서지 않았
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고 또 被害者 證言도 앞으로 많이 들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民正黨
으로서는 聽聞會를 계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聽聞會를 계속해
서 이와 같은 眞實糾明을 확실히 한 다음에
그에 근거해서 責任을 묻고 또 해결 方案을
찾아야 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서는 다음번 聽聞會 期日을 잡아야 될 것입
니다. 또한 다음번 聽聞會때 訊問할 證人의
범위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證人의 범위
에 관해서 저는 이미 채택된 이태원記者와
鄭鎬溶特戰司令官의 對質審問도 이 다음 期日
에 반드시 訊問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趙甲濟記者와 崔 雄旅團長 趙甲濟記者
와 安富雄大隊長의 對質審問도 이 다음 期日
에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채택된 千金成씨의 책자에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千金成씨도 이 다음 機會에 꼭 불러서
그 冊子의 內容이 사실인지의 與否를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千金成

趙甲濟 李泰元 崔 雄 安富雄 鄭鎬溶씨의 證
言을 다음 機會에 꼭 듣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聽聞會 때 제가 出國禁
止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光州虐殺에 관련한 犯罪者들과 偽證嫌疑者들과
同行命令에 不應하고 있는 全斗煥 崔圭夏 前
大統領 최소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出國禁止決議를 해서 法務部側에 通
告하는 그러한 節次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許文道證
人이 出國을 함으로써 얼마나 國民들이 失望
을 했습니까? 그것은 國會가 자기 職務를
遺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光州特委에서
도 職務를 遺棄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國民
에게 罪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여러 사람들의 出國을 禁止決議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某 新聞 「토티」記事까지
나왔읍니다마는 또 聽聞會 때 平民黨委員들께
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民正黨委員들이 總
指揮를 해서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흘동안
證人으로 나온 大將級들을 모아다가 거기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脚本을 脚色을 하고
演出까지 해서 證言臺에 내보내가지고 偽證을
敎唆했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실이 드러났
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現役 議員들이 그와 같은
國會에 나오는 證人들에게 偽證을 敎唆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렇
기 때문에 우리 光州特委에서 調查委員會를
構成을 해서 그 調查委員會로 하여금 이와
같이 現役 民正黨議員들이 과연 證人들에 대
해서 偽證을 敎唆했는지의 與否를 밝혀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特委 이름으로 偽
證敎唆罪로 民正黨議員들을 告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위
해서 우리 特委委員들로 하여금 調查委員會를
構成을 시켜서 그 調查委員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調查하도록 이 委員會에서 이 자리
에서 決議가 돼야 될 줄로 생각을 해서 서너
가지 말씀을 提案을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實彈問題에 관련된 對質審問
들을 하자 하는 案하고 우리가 몇몇사람 '지
적해서 出國禁止를 決定하자 하는 문제하고

偽證敎唆調查委員會를 만들자 세가지 提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聽聞會는 우리가 날차
를 정해서 하자 하는 大前提지요?

○張石和委員 당연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다른 분들 말씀하세요.

예. 朴燦鍾委員 말씀하세요.

○朴燦鍾委員 몇 가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제 記憶으로는 아마 民正黨委員들이 오늘로
세번째 全員이 全體會議에 不參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전에 不參한 事態에 대해
서는 제가 비판을 삼가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바로 지난 聽聞會가 미결된 부분이
實質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實務的으
로 미진한 부분을 오늘 이 全體會議에서 實
務적으로 論議해야 할 이 會議場에 政治的
이유로 民正黨 特委委員들이 參席하지 않는
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쾌할 뿐 아니라 國
民의 엄격한 地탄을 받고 비판을 받아 마땅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제가 먼저
번 聽聞會에서 특히 全斗煥씨에게 發付되었던
同行命令狀이 執行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큰 過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고 하니
同行命令狀은 아무 제한없이 同一人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發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國會가 우리들의 自律權
에 의해서 스스로 결단해서 만든 證言鑑定法
上의 그 條項대로 執行이 안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瑕疵治癒라는 입장을 떠나서라도 당연
히 再執行해서 聽聞會 日程이 오늘 이 자리
에서 實務적으로 決定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
니다.

그 聽聞會에 民正黨이 不參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들의 政治的 결단에 맡긴다 하더라도
오늘 이것은 이 자리에서 實務적으로 당연히
論議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張石
和委員의 意見에 저는 전적으로 同意를 포함
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特委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먼저 번에 不出席
한 張世東證人의 處理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政府가 張世東證人에
대한 國會出席을 막아 주었습니다. 우리 野

圈이 주도하고 있는 이 光州特委 立場에서 보면 政府가 방해한 것이고 政府 立場에서는 張世東證人을 절반은 保護하는 의미에서 안나 가게 했고 나머지 절반은 이 聽聞會에 나와서 張世東證人이 光州問題 등 기타 그가 5共의 핵심으로서 가능하고 역할했던 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證言을 하다보면 현재의 盧泰愚 大統領의 6·29宣言 등과 관계되는 正當性問題 까지 건드리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절반 이렇게 해서 지금 張世東證人은 아주 치밀한 計劃에 따라서 不出席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보름 전서부터 新聞 放送에 報道된 것·똑똑히 記憶합니다. 내일 召喚할 것이다 모레 할 것이다 모레가 되면 또 來日 할 것이다 이러다가 光州聽聞會가 있기 전날 召喚해서 하루를 묵히고 마지막날 令狀을 執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野圈이 이 問題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한다면... 뭐 그럴 리도 없겠습니까마는 이것은 國民의 疑懼心을 자아낼 部分이기 때문에 오는 張世東證人에 대한 出席을 포함한 聽聞會 日程을 이 자리에서 반드시 決定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國民들은 이것이 與小野大 國會이기 때문에 聽聞會運營이 파행이 된다는지 同行命令狀 執行에 다소 소홀한 점이라든지 瑕疵가 있었다든지 또는 張世東證人이 政府의 公權力에 의해서 사실상 出席이 방해 내지 은폐됐다는지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 政治的 責任을 우리 野圈에게 묻습니다. 與黨은 이렇게 무슨 생각인지 자신만만하게 政治적으로 不出席하고 있지만 모든 결과 책임은 이것이 12代 國會 때와 같이 與大野小 國會가 아닙니다. 이것이 與大野小 國會같으면 오늘 우리 籠城해야지요. 全斗煥씨 안 나오고 張世東이 안 나왔을 때 우리 籠城했어야 됩니다. 野大 國會인데 어떻게 우리 野圈이 籠城합니까? 여기에는 뭔가 우리의 결연한 意志와 단합된 行動 모습을 野大가 보여 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強行하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이렇게 與黨이 參席 안하고 決定해도 그것이 國民이 다 납득할 수 있도록 “아 이것이 이렇구나”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저는 아

침 新聞을 봤는데 우리가 同行命令狀 執行도 이렇게 어딘가 미진하고 그랬는데 野圈의 一角에서는 出張 訊問도 고려할 만 하고 그것이 政治協商의 대상인 것처럼 報道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百潭寺에서 다른 모든 通路가 차단되어 있을 때 그 新聞이 우연히 들어간다고 한다면 全斗煥씨가 眞心으로 眞意로 이 國會에 不出席하리라고는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盧泰愚政權이 방해하고 있다 라고 보는 사람인데 만일 그랬을 때 全斗煥씨가 이 新聞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 光州特委 文東煥委員長 이름으로 發付된 同行命令狀에 대한 그 결연성에 대해서 納得 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野圈만 모였으니까 우리 野圈이 한번 省察해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께서도 아침 新聞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물론 그것이 어떤 經緯로 그런 報道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誤報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委員長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野圈一角에서 우리가 同行命令狀까지 발부해서 의지를 보이려고 하는데 집행도 안됐다 공교롭게 鳥飛梨落인지는 몰라도... 그런데 野圈의 책임있는 首腦部에서 나오는 얘기는 出張訊問도 괜찮다 協商도 가능하다 하는 여운을 남기고 示唆했다 이렇게 報道가 되고 있는 판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 委員長께서 의 입장을 어떤 것인 것이고 이러한 報道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제가 私見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 野圈委員들 간에는 합의되고 共感帶가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間接訊問이라든지 出張訊問이라든지 이것은 절대로 歷史를 거슬리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왜 國會여야 하느냐 왜 國會라는 이 公開된 意識 「세러머니」를 통해서 全斗煥씨가 여기에서 왜 證言해야 되느냐? 5共和國이 장막뒤에서 껌껌한 가운데서 陰謀의으로 출범했고 延禧洞에서 聲明發表하고 百潭寺간 그 延禧洞이라는 공간도 결국 장막뒤의 껌껌한 곳입니다. 百潭寺가 어떤 곳입니까? 그것도 역시 政治적으로는 장막뒤의 껌껌한 곳입

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장막뒤에서 컴컴하게 執權을 해서 컴컴한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그 일은 우라 國會가 다시 그 컴컴한 데에 가서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 이것은 歷史가 용납하지 않을 일입니다. 따라서 이 公開된 자리로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一時 公開로 하느냐 非公開로 하느냐 그 문제까지 저는 고집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全斗煥씨는 그 本人을 위해서도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張世東씨도 나와야 됩니다.

5月18日 이전까지 왜 空輸部隊가 落下傘타고 떨어져야할 敵陣에 안떨어지고 왜 光州錦南路에 갔느냐 이말이야! 그것을 光州錦南路에 落下傘이 아닌 자동차로 실어 보내 들이민 것은 다 全斗煥씨 책임이고 이 秘密을 쥐고 있는 것은 空輸特戰司의 당시 作戰參謀였고 12·12의 核의 核으로서 그 謀議場所를 제공한 張世東씨가 가장 잘 알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러내야 돼요.

○委員長 文東煥 結論을 말씀해 주세요. 대개 우리가 共感하는 것이니까.

○朴燦鍾委員 저의 結論은 張世東證人의 여기 出席時間에 맞추어서 檢察搜查를 한데 대해서 發表된 拘束令狀의 要旨를 보면 하필이면 그 시기에 그 사람 안불러가도 이미 다 조사되었던 내용을 한 것이니까 이것은 제가 前日に 이어서 委員長께서 靑瓦臺의 盧泰愚 大統領께 직접 항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抗議覺書를 보내실 것을 저는 動議를 하고 따라서 張世東씨와 全斗煥씨에 대해서 出席證言할 수 있는 聽聞會日字를 오늘 우리끼리 이것은 實務의으로 안된 일이니까 눈치볼 것 없어요. 우리끼리 이것을 決定할 것을 動議하고 둘째로는 全斗煥씨의 意思를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國會의 체신과 관계없는 일이에요. 정말로 그 사람이 眞意로 안나오려고 하는 것인가 盧泰愚政權의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거듭 百潭寺에 少數代表團을 파견할 것을 다시 한번 정식으로 動議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잘 들으셨겠습니까.

다른 분들 말씀해 주세요.

○李海瓚委員 平和民主黨의 李海瓚입니다.

두분 좋으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드리고 제 입장을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張石和委員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發砲命令에 관련한 지금까지의 大隊長과 旅團長의 證言이 허위였다 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상태기 때문에 이 점에 관련해서 張石和委員께서 말씀하신 對質審問을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崔雄 旅團長 그 다음에 安富雄 大隊長 그리고 鄭鎬溶 當時 特戰司司令官 當時 特戰司司令官 鄭鎬溶 將軍은 21日만 光州에 없었던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20日부터 27日까지 줄곧 있었고 21日만 유독 없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바로 그날이 發砲命令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날이고 그리고 旅團에 탄약이 온 것으로 봐서 旅團長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1日 없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문시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1日 發砲命令에 관련해서 鄭鎬溶 崔雄 安富雄 이 3者 그리고 發砲命令에 관련해서 趙甲濟記者의 「인터뷰」에는 鄭鎬溶將軍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趙甲濟記者를 포함 하는 4名의 對質審問을 한 자리에서 할 것을 提案하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現場을 우리가 지금 周南마을하고 道廳앞 發砲狀況에 관련해서 약간 했읍니다. 두가지쯤 해 보고난 결론이 道廳앞 發砲狀況에 관련해서 訊問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發砲命令 지금까지의 軍人들의 주장이 허위였다는 것이 드러났고 도 周南마을에 있어서의 良民을 現場에서 처형한 사실도 지난 安富雄 證人의 證言에 의하면 끌어간 것까지는 是認을 했읍니다. 周南마을에서 이루어진 行爲 自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했읍니다. 그 얘기는 결국 特委에 被害者의 證言 自體를 전혀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한 것이라고 推論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 처럼 現場에 관한 證言을 우리가 들으므로써 사실에 훨씬 접근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읍니다.

그래서 光州狀況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狀況

중에 두 가지 狀況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狀況으로서 松岩洞에서는 國民學生 中學生을 포함해서 6名 정도의 良民이 그냥 학살을 당한 現場이 있습니다.

5月24日 松岩洞을 위시한 그 地域一帶에서의 良民虐殺에 관한 現場證言 그리고 5月27日 마지막 道廳進軍當時에 관한 狀況이 被害者들의 證言을 거의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번 林守元 大隊長의 證言이 약간 있었읍니다마는 거기에서도 射殺者라든가 屍體處理過程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證言이 안 되었읍니다.

따라서 5月27日 새벽 道廳鎮壓狀況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狀況이기 때문에 證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矯導所에서 屍體를 假埋내지 暗埋葬했거나 全斗煥씨가 矯導所에 왔었다 라고 하는 李仁濟委員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저희도 같은 提報를 받고 있기 때문에 矯導所에서의 暗埋葬 그리고 銃擊戰 部分 이 부분에 관한 證言聽取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光州에서 暴徒로 몰린 사람들이 裁判過程에서 그리고 搜查過程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苛酷行爲를 많이 받았읍니다.

조작된 事件을 꾸미기 위해서 搜查過程에서 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拷問과 苛酷行爲를 많이 받았고 裁判過程節次 自體가 대단히 不法的으로 진행이 됐읍니다. 그리고 그 刑量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그런 判決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裁判過程에 相關한 部分 搜查過程과 裁判過程에 相關한 部分에도 部分的인 證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整理해서 말씀드리면 張石和委員께서 提案하신 部分 對質審問 그리고 現場에서의 松岩洞 道廳 矯導所 裁判過程 이 네가지 부분에 現場證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실제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無限定하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月 들어가서 설이 끼어 있고 그 다음에 13日부터 臨時國會가 열리면 約 1週 日間的 本會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간속에서 빨리빨리 眞實을 밝혀야 되기 때

문에 저는 2月10日이나 11日 이틀 정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臨時國會에서 本會議對政府質問이 끝난 2月21日 22日頃에 한번 하고 3月初에 마무리 하는 그런 聽聞會를 해서 대개 세 차례 정도의 聽聞會를 통해서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證言을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小委員 活動을 통해서 資料를 보완해서 國會 特委活動의 內實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文東煥委員長, 辛基夏幹事와 司會交代)

마지막으로 崔圭夏 全斗煥 張世東에 대한 同行命令에 關係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關係해서도 지금 朴燦鍾委員께서 좋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현재까지 特委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關係해서 同行命令을 집행해야 한다 라는 基本原則에 變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新聞을 보고 알았읍니다마는 部分的으로 間接證言 혹은 出張證言 이런 얘기도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점에 關係해서 特委活動의 주체는 國會特委지 그것이 어느 政黨이나 이런 部分에서 하나의 의견으로서는 제안할 수 있지만 最終的인 결정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에 대해서도 同行命令을 다시 집행하고 그러고도 同行命令을 거부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이 特委에서 결정해서 最終的으로 정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張石和委員 證人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나서 말씀하도록 하시지요.

金文元委員 말씀하시지요.

○金文元委員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金文元입니다.

基本的으로 이 聽聞會는 發砲命令者가 누구고 光州事態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하는 基本的인 根本原因을 캐기 위해서는 계속 聽聞會를 해야 한다는 것이 一般國民의 輿論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어떤 輿論이 있느냐

하면 聽聞會로 인한 여러 가지 社會不安이라든가 政局不安問題 그리고 聽聞會 自體에 대한 食傷感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부 國民들은 聽聞會를 可及의이면 빨리 마무리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輿論도 있습니다.

이러한 輿論이 나오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우리 光州聽聞會特委 自體 스스로도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或者는 이것이 聽聞會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黨利黨略의으로 흐르다든지 個人의 인가를 의식한 쪽으로 흐르다든지 여러 가지 副作用을 얘기하는 國民들도 솔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聽聞會에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앞으로 이러한 聽聞會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반성하고 이러한 光州抗爭에 대한 원인과 또한 具體的으로 말하면 發砲命令者 國民의 審判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명확히 가려낼 수 있는 이러한 근엄한 태도와 자세로 앞으로는 光州聽聞會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3總裁會談이 있었습시다마는 제가 陪席한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세 분이 모인 가운데에서도 제목이나와 있습니다. 光州聽聞會 내지는 5共問題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그리고 또한 社會不安이나 政局의 不安없이 잘 마무리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세 분께서 진지하게 아주걱정을 하시고 여러가지로 근심하시는 표정을 제가 엿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 문제는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아까 李海瓚委員께서 聽聞會를 세번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세번이 아니라 國民이... 정말로 이것이 원인을 깨야 될 때까지 세번 아니라 백번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政治的인 상황으로 봐서 우리의 聽聞會運營의 실효를 거두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一 예를 들어서 聽聞會를 열어서 정말로 이것이 真相이 파악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聽聞會를 또 열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각 小委에

서 지금 現場檢證도 하고 있고 저는 韓美小委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클라이스틴」이나 「위کم」도 만나야 되겠고 해서 거기서 真相이 밝혀지면 거기서 真相을 규명해서 國民에게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小委員會 中心의 그러한 聽聞會를 계속하면서 그 원인을 파가는 것이 더욱 效果的인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충정은 뭐냐 하면 聽聞會를 중단하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聽聞會를 계속하되 聽聞會를 해나가는 運營方式을 우리가 좀 바꾸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全體的으로 모여서 聽聞會를 할 必要性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小委活動으로 더욱 더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의 事案에 대해서는 小委員會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聽聞會를 계속해 나가자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하고자 하는 것은 初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우리 光州聽聞會가 정말로 이 歷史的으로 일어나는 이비극을 파헤치는데 우리 스스로 겸허하고 엄숙한 자세로서 앞으로 聽聞會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聽聞會를 개최할 것은 개최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小委員會 中心으로 이것을 갖다가 파헤쳐 나가는 그래서 可及의이면 國民의 심려를 덜어주고 그리고 원인을 效果的으로 파헤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안해 드리는 것이니까 委員長님께서 들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具體的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金文元委員님의 말씀에 이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聽聞會는 우리 法律上 國會全體所屬委員들... 光州特委全體所屬委員들로서만이 聽聞會活動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小委員會나 班을 구성해서 國會光州特委의 調查活動을 하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聽聞會活動은 전체로서 구성된 聽聞會에서 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金文元委員 그러니까 小委活動에서 말하자면 調查 하고 결론지은 것 이것은 나중에 全體會議에서 보고되어 가지고 처리되는 것 아니

겠습니까? 그런문제고 이왕 말씀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民正黨에서 지금 참여를 안한 이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聽聞會 날짜를 여기서 정한다는 것은 政治的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可及的이면 이 民正黨을 끌어들어서 國民들이 보는 모양새라든가 또한 國民이 보는 신뢰성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로 보아서 반드시 民正黨을 이 자리에 불러들여서 政治的인 역량을 발휘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光州聽聞會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個人的인 소견입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또 다른 委員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게 바랍니다.

金仁坤委員님 말씀하세요.

○金仁坤委員 저희 黨의 金文元委員님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聽聞會를 계속하되 小委員會도 병행해서 활동을 해가지고 效果的인 시일을 단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려집니다.

(辛基夏幹事, 文東煥委員長과 司會交代)

잘못하면 聽聞會를 그만 하자는 얘기로 오해를 살 것 같고 일부 신문에 방송에 그런 말을 해 보지도 않았는데 어제도 제가 그 방송을 직접 들었어요. 共和黨에서 무슨 聽聞會를 民正黨과 마찬가지로 그만 하자는 얘기도 있다 내입에서 이런 얘기 나온일도 없고 總務입에서도 두 세번은 더 해야 한다 최소한도 한 두번은 더 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저도 지금 朴燦鍾委員님이나 張石和委員님이나 李海瓚委員님 우리 金文元委員님 말씀에 全幅的으로 同意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한번 오늘 여기서 날짜를 받아 가지고 一方的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노력하는 모습을 인내하는 모습을 國民앞에 좀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성의를 다해도 또 모든 인내를 다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불참하고 방해하고 은폐하고 공작하고 하는 방향으로 나갈 때는 野3黨과 無所屬이 합심이 되어 가지고 하더라도 國民의 지탄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物理的인 날짜로 봐서는 아까번의 張石和委員님이나 朴燦鍾委員님 말씀

하신대로 날짜를 확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번 忍耐한다는 뜻에서 오늘 만큼은 날짜를 잡는다든가 이런 具體的인 것은 피하고 다시한번 막후절충을 해서 民正黨을 끌어 들일수 있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趙淳昇委員 委員長님께 하나 여쭙어 보겠습니다.

民正黨에서는 小委員會 中心으로 한 聽聞會는 계속하겠다는 것입니까?

○委員長 文東煥 聽聞會는 안하고 小委員會를 하자는 것입니다.

趙委員 말씀하세요.

○趙洪奎委員 平和民主黨의 趙洪奎입니다.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聽聞會問題만 먼저 말씀을 한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聽聞會가 特委活動의 전부는 아님니다마는 그러나 기왕 계속된 活動인데 이 시점에서 中斷할 것이냐 아니면 無期限延期해야 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몇분 委員들께서는 政治的인 狀況 또 政治力의 發揮 이런 측면에서 깊이 고려하시자는 意見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民正黨의 자세로 보아서 도 態度表明으로 보아서 民正黨이 참여할 수 있는 狀況의 전개는 없을 것으로 저는 예측하기 때문에 民正黨이 어떤 경우에도 聽聞會의 참석은 안할 것으로 黨의 방침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民正黨을 고려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野圈3黨 특히 無所屬의 朴燦鍾委員까지 포함해서 단결된 모습으로 하자고 한... 聽聞會를 강행하자고 한 朴燦鍾委員의 意見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民正黨을 의식하는 특히 政治的인 상황을 의식하는 光州聽聞會만은 우리가 피해야된다 왜냐하면 다른 特委와 달라서 光州特委에서 다루고 있는 光州問題는 生命의 問題이고 被害問題입니다. 權力問題라든지 現實的인 차원의 것이 아니고 보다 깊은 次元의 歷史的인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黨利黨略的인 모든 것을 고려해주는 그런 자세만은 이 光州特委에서만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특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까지는 民正黨이 있음으로 해서 各黨에 할애 되는 시간이나 證人採擇問題도 政黨次元의 各黨間의 立場의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는데 民正黨이 배제됨으로써 오히려 이제 本格的으로 聽聞會를 가동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우리 政黨의 입장을 각자 떠나서 지금 光州問題만을 볼때 被害者側과 加害者側이 있는데 加害者인 少數軍事「쿠데타」勢力은 少數였고 被害者는 數百萬입니다. 光州市民뿐만 아니라 全南道民 거의가 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證人만 하더라도 數拾萬名입니다.

따라서 加害者와 被害者의 비율로 볼 때 지금 實質적으로 加害者側과 被害者側이 거의 同數로 지금까지는 聽聞會의 證人으로 채택했는데 사실은 數拾배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被害者側 證人으로써는 사실 道廳앞의 문제하고 周南마을...

이 道廳앞 문제와 周南마을 문제는 光州問題 전체에서는 지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光州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지극히 미흡한 것입니다. 따라서 光州問題의 열흘간의 光州狀況을 全體的으로 볼 수 있는 입장에서 다양한 證人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미 우리가 數拾名의 證人을 채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봐서 政治的인 입장이나 各黨의 입장이나 또 國會의 일정하고 상관없이 우리 特委로서는 계속적인 特委活動을 빨리빨리 전개해서 최소한 빠른 時日內에 이 特委活動을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더디게 가면 앞으로 盧泰愚政權이 있는 한 못하는 것이고 또 數拾年間 이 特委만을 계속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볼 때 빨리빨리 가동시켜 줄 것을 委員長님과 委員님들께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말씀으로는 委員長님께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정리하시라고 議決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發言하지 않으신 분들을 發言權을 드리고 재차드리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분 하실 분들 없으십니까? 아니 간단히처럼 되니까 끝고루 돌아가며...

예. 金文元委員 말씀하세요.

○金文元委員 趙洪奎委員 말씀을 이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前에도 民正黨이 없이 우리가 聽聞會 날짜를 일방적으로 議決하고 난 다음에 國民의 輿論이나 감정이 어땠습니까? 그당시 그래서 결국 民正黨을 끌어 들여서 우리가 인내하고 애를 써가지고 國民들이 보는 여러가지 시각을 조정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民正黨없이 우리가 一方的으로 강행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라는 과거의 先例로 보아서 그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委員長님께서서는 發言申請을 하면 주어야 됩니다.

○委員長 文東煥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음은 張石和委員 말씀하세요.

○張石和委員 제가 證人을 추가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나오지 않은 張師福證人 또 그동안에 채택된 李相薰國防部長官과 鄭雄議員과의 對質審問 崔世昌參議長 당시 旅團長입니다마는 이와같은 證人들은 중요한 證인들이기 때문에 이 다음 기회에 꼭 證人으로 채택해서 聽聞會에서 訊問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제는 지금 대충 委員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證人選定問題와 次回 期日을 이 자리에서 정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이 자리에는 民正黨이 不參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정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절충해서 委員長께서 次回 訊問期日과 次回에 訊問할 證人範圍를 委員長에게 一任하면서 委員長이 幹事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委任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折衷案을 제가 내보면서 다만 聽聞會는 계속 되어야 됩니다. 聽聞會는 계속하는 것 전체로 해놓고 이와같이 訊問期日과 訊問할 證人을 정해야지 聽聞會 자체가 필요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再請이 있습니까?

(「再請이오」하는 이 있음)

聽聞會는 한다는 大前提 아래서 證人과 時日에 대해서는 幹事들과 협의해서 委員長이 決定한다는 動議에 대해 再請이 있었습니다.

다른 委員님들 異議가 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同意하시는 것으로 알고 決議를 宣布합니다.

○張石和委員 아까 제가 서너가지를 말씀드렸는데 出國禁止 決議問題와 調查委員會構成問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委員長 文東煥 아까는 懇談會 형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具體的으로 案을 제시해 주십시오.

○張石和委員 그러면 우선 出國禁止問題에 관해서는 제가 추상적으로 光州虐殺犯罪嫌疑가 있는 者 또는 偽證嫌疑가 있는 者, 同行命숨에 불응한 全斗煥 崔圭夏 前大統領에 관해서 出國禁止를 決議해서 法務部側에 통보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點에 관해서도 그러면 기왕에 次回訊問 期日과 證人選定을 하면서 동시에 이와같은 出國禁止對象者의 범위를 委員長과 幹事께서 협의하셔서 결정해 주실 것을 動議하고 또 偽證教唆問題에 관해서도 調查委員會構成問題를 그자리에서 委員長과 幹事께서 협의해서 決定해 주시는 것을 委任하는 것을 動議하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動議에 再請있으십니까?

○趙洪奎委員 再請합니다.

○李海瓚委員 異議있읍니다.

지금 張石和委員의 여러가지 提議에는 基本的으로 同意합니다.

出國禁止에 관련해서 崔圭夏 全斗煥을 비롯한 몇사람에 관해서는 幹事會議에서 合意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同意를 하는데 다만 지난번 大隊長들이 民正黨과 같이 각본을 짜고 「리허설」을 했다는 것을 관계된 資料도 저희가 입수를 했고 또 당사자들도 크게 부인 못하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틀림없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國會가 그런 모든 事實的인 것까지 다 小委를 구성해서 추적하다 보면 물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國會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있는 것이고 또 지나치게 미세한 문제까지 國會가 小委를 구성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問題點도 지적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資料檢證小委나 現場檢證小委 이런 부분의 어느 小委에 委任시켜서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吳景義委員 委員長님! 지금 李海瓚委員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張石和委員님 말씀의 요지는 그렇게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方法은 幹事會議에 委任을 해가지고 幹事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그런 요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는 具體的인 案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李海瓚委員님 말씀이나 張石和委員님 말씀이나 별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異議를 提起해 가지고 지금 動議와 再請이 나와 있는데 다른 改議를 제시한다든가 해서 表決에 들어가서 복잡성을 더기 보다는 取下를 李海瓚委員이 하신다면 表決없이도 萬場一致로 통과되겠습니다마는 저는 무엇을 우려하느냐 하면 議事進行要領上 異議를 제기해서 改議를 표한다면 오히려 복잡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 委員長으로서 이렇게 정리하고 可否를 묻겠습니다.

出國禁止對象者에 관한 것은 幹事會議에서 委員長과 같이 決定하는 것으로 하고 偽證教唆를 調查하는 문제는 이것은 대단히 미묘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幹事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양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朴燦鍾委員 張世東證人 不出席問題에 대한 政府에 대한 해명 및 항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께서 하시도록 촉구했는데 그에 대한 委員長의 결심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百潭寺代表團 파견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委員長 文東煥 幹事들하고 協議해서 執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燦鍾委員 幹事會議에 저도 좀 끼워주세요.

○委員長 文東煥 참석하세요.

○朴燦鍾委員 會議가 늦어져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委員長께 次期 聽聞會 開催日程까지

너무 포괄적으로 委任한 것 같은데 委員長께서 그러면 대개 언제까지 언제경에 聽聞會를 열도록 調整해 보겠다 이렇게 해야지 너무 막연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제 심정은 빠른 시일내입니다. 幹事들하고 같이 協議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提案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會議는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29分 散會)

○出席委員

文東煥 辛基夏 李海瓚
趙淳昇 趙贊衡 趙洪奎
崔鳳九 金沅桓 吳景義
李仁濟 張石和 曹萬厚
金文元 金仁坤 尹在基
朴燦鍾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門委員 陳在勳
立法審議官 金永善

【報告事項】

○特別委員變更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5·18光州民主化 運動真相調查特別	趙洪奎	趙淳昇	平和民主黨
	金泳鎭	趙洪奎	〃

(1月30日字)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5·18光州民主化 運動真相調查特別	鄭東鎬	趙榮藏	民主正義黨
	朴泰權	趙萬厚	統一民主黨

(1月31日字)